

“호남 중심·에너지수도” 힘찬 발걸음

나주 임인년 시무식...시민 행복·지역 발전 전념 선도정책과제 추진·국가대형연구시설 유치 총력

나주시가 3일 2022년 임인년 시정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갖고 ‘호남의 중심·에너지수도 나주’ 건설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은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과 부처장, 읍·면·동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인사, 공무원 헌장 낭독, 신년사, 신년다짐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나주시는 민선 7기 시정이 마무리되는 올해 ‘코로나19로부터 온전한 일상 회복 지원’, ‘선도정책과제 전략적 추진’, ‘상생하는 자치농업 실현’, ‘문화·예술·관광도시 위상 정립’, ‘혁신도시 시즌2 선제적 대응’, ‘지방자치시대 열린 시정 구현’ 등 6대 중점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둔 촘촘한 방역, 경제지원 인프라 구축과 선진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획득, 여성·아동·고령 3대 친화도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 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을 비롯한 영산강 생태복원,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마한사 복원, LG화학나주공장 관내 이전 등 선도정책과제는 민관의 개방적 협치와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나주형 로컬푸드 인증제도 구축’,

‘농산물 제2가공센터 개소’,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더불어 침체된 농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인프라 확대, 농업인력 수급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여기에 ‘사이버 나주학 자료관 구축’,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남도의 병 역사박물관 건립’, ‘나주읍성·나주

목판아·향교복원 정비’ 등 2,000년 역사에 기반한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정책도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를 표방하는 나주시는 올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 한전 에너지 신기술연구소 개소와 더불어 초강력레이저센터 등 국가대형 연구시설 유치 총력전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국정 방향인 ‘혁신도시 시즌2’의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전라남도·16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의 추진 체계, 유치 전략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또한 ‘시민 건강권·환경권 보장’의 확고한 입장 가운데 이해당사자와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강인규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지방정부가 새 출범하는 변화의 시대에 맞춰 호남의 중심, 에너지수도 나주 건설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에 1천여 공직자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나주시가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2년 임인년 시정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가졌다.

/나주시 제공



김준성 영광군수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 청렴서약서 서명...새해 집무 시작

영광군이 2022년 새해를 맞아 반부패·청렴 서약서 서명과 함께 집무를 시작했다.

영광군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제자·배우하는 업무수첩에 반부패·청렴 서약서를 삽입, 청렴한 생활 및 반부패 적결을 다짐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 모두가 청렴서약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다.

반부패·청렴 서약서는 영광군 공직자로서 청렴한 업무태도와 부패 적결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공직

자로서 법과 원칙 준수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사항 적극 신고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의무 준수 등을 담고 있다.

영광군은 청렴서약서 서명운동 전개를 시작으로 청렴실천 캠페인, 공직자 청렴 교육 의무 이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활성화,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등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며 사전·지도적 차원의 감시활동을 적극 펼쳐 공직자간 확립 및 청렴도 향상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영광=곽용순 기자

장성가족센터,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여가부 SOC 우수사례 공모전

장성군이 건립중인 ‘가족센터’가 최근 전국 규모 공모에서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군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가족센터를 건립 중인 전국 9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2021년 가족센터 SOC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 내 유일한 수상 기록이다. 장성군은 공간 구성의 적정성과 보편적 디자인(UD) 계획 안전성,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내부 공간 구성과 외부 디자인의 우수

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장성군 가족센터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으로 구성된 다목적 복지회관이다. 현재, 장성을 영천리 1487-10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연면적 2,957㎡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02억원이 투입됐다. 준공 시기는 2023년 무렵이다.

관공 이후에는 ▲영·유아·노인 생애주기별 서비스 ▲한부모 등 형태별 가족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가족센터 공간을 활용한 교육·소통·상담 등도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전일용 기자

화순, 행안부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화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안부는 최근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화순군은 올해 적극적인 사전 공개, 청구공개 등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2019년과 2020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이었던 화순군은 올해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정보공개 업무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화순=이종백 기자

담양,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역사박물관 건립 등 38건

담양군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3년도 국비 확보 체제에 돌입했다.

담양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국·도비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최형식 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

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사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과 현안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생활체육공원형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담양 역사박물관 건립, 정일 속의 동화미술 공원 조성사업,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대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4건이 발굴됐다.

아울러 계속 사업인 평화예술공원 조성, 담양군 문화도시 조성, 담양호 수변길 조성사업,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활성화, 한국정원문화원 조성사업, 고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4건에 대해서도 연차적 사업비를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나온 국·도비 건의사업 외에도 담양이 지향하는 추가 사업과 공모사업을 발굴해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중점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최형식 군수는 “올해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담양군이 앞으로 문화예술도시에서 더 나아가 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며 “차기 국정과제에 따른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안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코팩스, 나주 세지면에 마스크 기탁

나주시 세지면은 최근 관내 업체 ㈜코팩스(대표이사 이진우)에서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 마스크 2,000매를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기탁된 마스크는 생계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홀몸노인 등 생활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됐다.

국내 양식사로 생산업체인 ㈜코팩스

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세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난 2017년부터 매월 30만원 정기 후원금(누적액 1,8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주택화재로 보급자리를 잃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이재민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나눔과 상생 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칭송을 받고 있다. /나주=조승권 기자



이산스틸, 담양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담양군은 최근 ㈜이산스틸(대표 김양록)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담양읍에 있는 ㈜이산스틸은 유로폼 보수 및 건설자재의 판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체로 전국의 주요 중·대형 건설현장 납품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을 전하며 누적 1,000만원을 기록했다.

김양록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중·대형 건설현장 납품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담양=정일남 기자



장흥 삼양농원 이성격 대표, 성금 300만원 기부

장흥 삼양농원 이성격 대표가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장흥군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성격 대표는 관산 방촌 출신으로 장흥 부용산 자락의 조선백자길에 표고버섯 재배 단지와 황칠나무를 30년 넘게 일구고 있으며, 2012년 표고버섯 생산자 104명이 주주로 참가해 농업회사법인 ‘정남진장흥표고주식회

사’를 설립하는 등 꾸준한 청정장흥 임산물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사랑과 정성으로 일구 낸 삼양농원의 푸르름처럼 이웃을 살피는 이성격 대표님의 건승을 기원한다”며 “소중한 기탁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감사를 표했다. /장흥=이옥현 기자